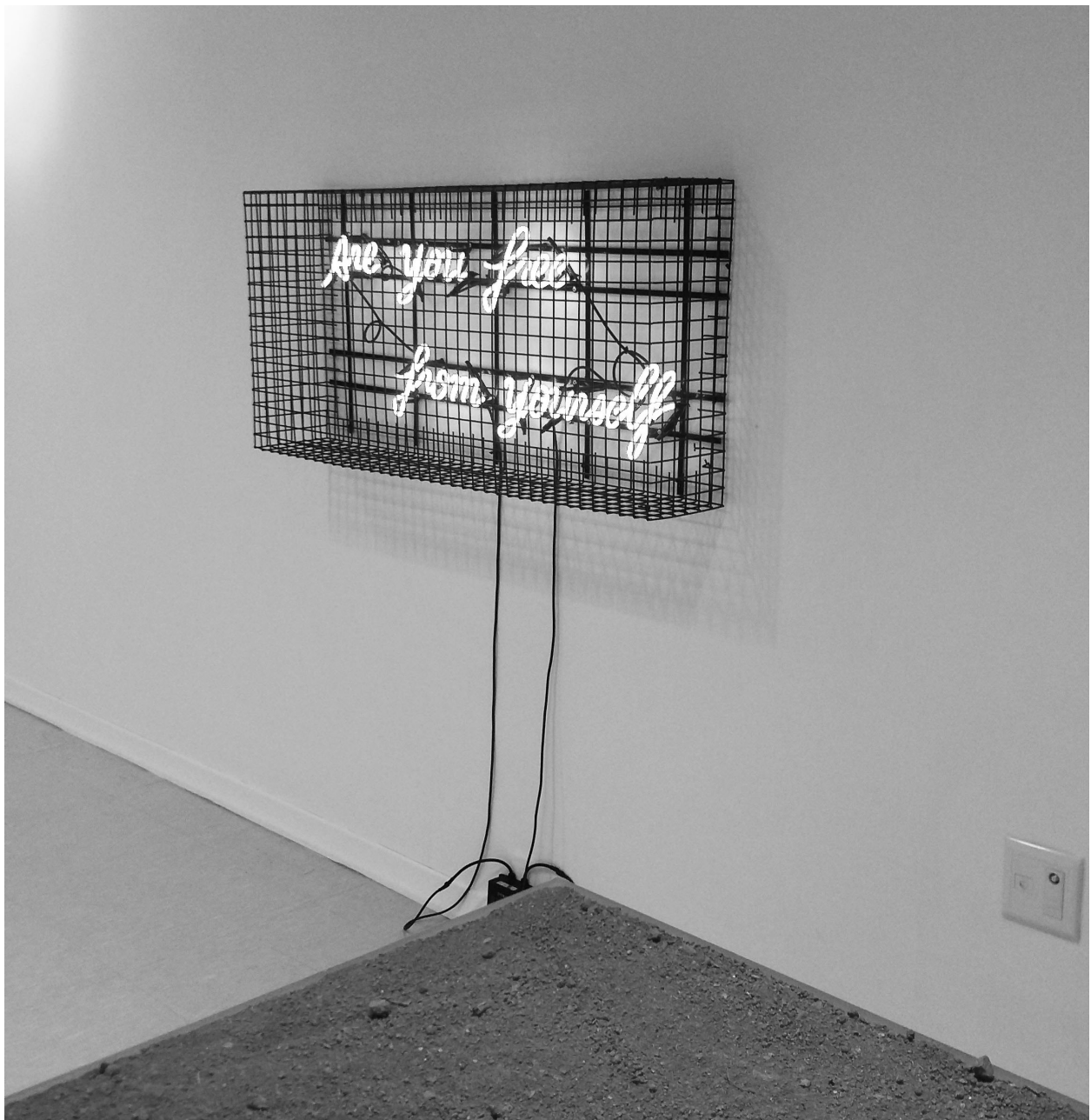


# 어머니로부터의 미술

김승영, 설치미술가 시인 예브게니 예프투셴코가 말했다. “남자들에게 모성권(母性權)이 주어졌다고 상상해 보라. 만일 순진한 생명이 남자의 몸 속에서 꿈틀거린다면 그보다 잔인할 수는 없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깊은 샘물에 두레박을 떨어 뜨려 길어올리는 모든 예술은 모두다 어머니로부터 나온 것이 틀림없으니 우리의 예술가는 어머니를 잃는 순간 땅이 꺼지는 슬픔을 느낀다. 예술가여! 상심하라. 상심하고 또 상심할지어라.



편집장님에게 전화를 드렸다.

“이번 호에는 레지던시 글을 잠시 멈추고 저의 어머니와 관련된 글을 써도 될까요?”

“그게 좋겠네요.”

대답은 간결했다.

그렇게 어머니 박홍순 안나를 생각하며 글을 써내려간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 기슴 시리게 아프고 멍멍한 단어, 어머니



지난해 가까운 이들의 갑작스런 죽음이 있었다. 이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2021년 3월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삶과 죽음의 사색’을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그리고 개인전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26일 23시 35분, 나의 어머니는 다른 세상의 문을 열고 나가셨다. 이미 2019년 겨울, 의사로부터 길어야 몇 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 죽음은 너무나 느닷없이 느껴졌다.

임종을 지키며 한 손으로 어머니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꼭 어머니를 주제로 전시회를 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안나 박홍순. 나의 어머니는 1936년 충남 예산 광시 하장대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19세에 아버지를 만나 가정을 이루셨다. 1950년도 딸에 자식교육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 서대문 근처 독립문 인근에 터를 잡았다. 4차선 도로를 건너다 싱싱 달리는 차가 너무 무서워서 중앙선에서 얼음이 되곤 했다는 가진 것 없는 촌부는 영천 시장에서 우산과 편물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며 나름 중산층의 삶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억척스럽게 일하셨을까 미뤄 짐작이 된다. 유복한 생활은 그리 오래지 않아 1984년 가세가 기울어 가족이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을 때도 그 작은 체구로 집안을 지켜낸 분이 어머니였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가진 생명력.



화실을 운영하며 지내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셋이서 겨우 누울 수 있는 단칸방에서 이야기하다가 나가신 어머니는 한 참동안 들어오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걱정돼 찾으러 나갔다 재래식 변소에서 울고 있는 작은 몸의 여인과 마주쳤다. 그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하러 가기위해 육교 위를 오르는 어머니의 몸이 유리막대와 같이 위태롭게 보여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나는 무기력하게 조금의 도움도 드리지 못한 채 어머니가 손에 쥐여 준 지폐 몇 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날의 강렬한 기억은 나의 마음깊숙이 어머니를 자리 잡게 했다. 그리고 이후 자연스럽게 어머니에 대한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 두 점의 <의자> 작품과 파생되어 나온 작품 <기억>이 있다. 사진 김용관





### 〈의자〉, 1995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의자가 있다. 앉을 수 없는 의자. 오직 어머니만이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 그랬다. 1985년 육교 위로 위태위태 올라가시던 나의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어머니처럼은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다. 그리고 1996년 첫 개인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유리로 된 의자에 물을 채워서 출품했다.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을 물 속에 집어넣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진 속의 가족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사진 속 인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충격적이면서도 서정적인 느낌을 받은 나는 1999년, 2001년에 〈기억의 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른 형식으로 작품을 발표했다.



〈의자〉, 2011 사진 박홍순

어머니가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겨울에 추위를 견디는데 사용했던 붉은 의자이다. 쇠로 만들어서 딱딱하고 모양이 웬지 앉기 불편해 보이지만 쇠 의자는 안에 물이 채워져 있어서 가스불에 의해서 물이 데워지면 제법 온기가 오래 남아 야외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물건은 어머니가 꽤나 아끼시던 의자였다. 어머니는 포장마차를 하시며 들이마신 가스와 탁한 공기로 인해 희귀병인 폐섬유화라는 병을 얻어 일을 그만두셨다. 이후 의자는 작업실로 옮겨졌고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야 작품이 될지를 고민하던 차에 2016년 사비나미술관 개인전에 지하 공간에 설치되었다. 어머니의 체온을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이 의자를 37도가 유지되도록 온열장치를 하고 지하 전시장 중앙에 놓았다. 붉은색 칠이 벗겨진 오래된 낡은 의자는 공간의 습하고 차가운 느낌과 어머니의 따뜻함이 강렬하게 느껴져 나조차도 놀라울 만큼 만족스러운 작품이다. 의자에서 전달되는 온기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안과 위안을 준다는 관람객들의 피드백을 듣다보면 좋은 작품은 재료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마음의 벽을 허무는 힘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한다.





〈기억〉, 2002

어머니에게 “살면서 언제가 가장 좋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18살까지가 가장 좋았지.” 잠시 생각이 멈춰졌다. 나의 어머니는 19세에 결혼하셨다. 수없이 많은  
관계와 사건들이 어머니를 거칠게 쓸고 지나갔으리라.

유리관에 부유하고 있는 사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미지가 흐려지고 사라져간다. 그 사진  
들이 지워지면서 서로의 이미지가 혼합되어 투명한 물이 희뿌연 상아색으로 바뀌어 진다. 백지가  
된 사진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희뿌연 액체의 이미지는 처연한 아름다움과 동시에 자신과 타  
자에 대한 일종의 폭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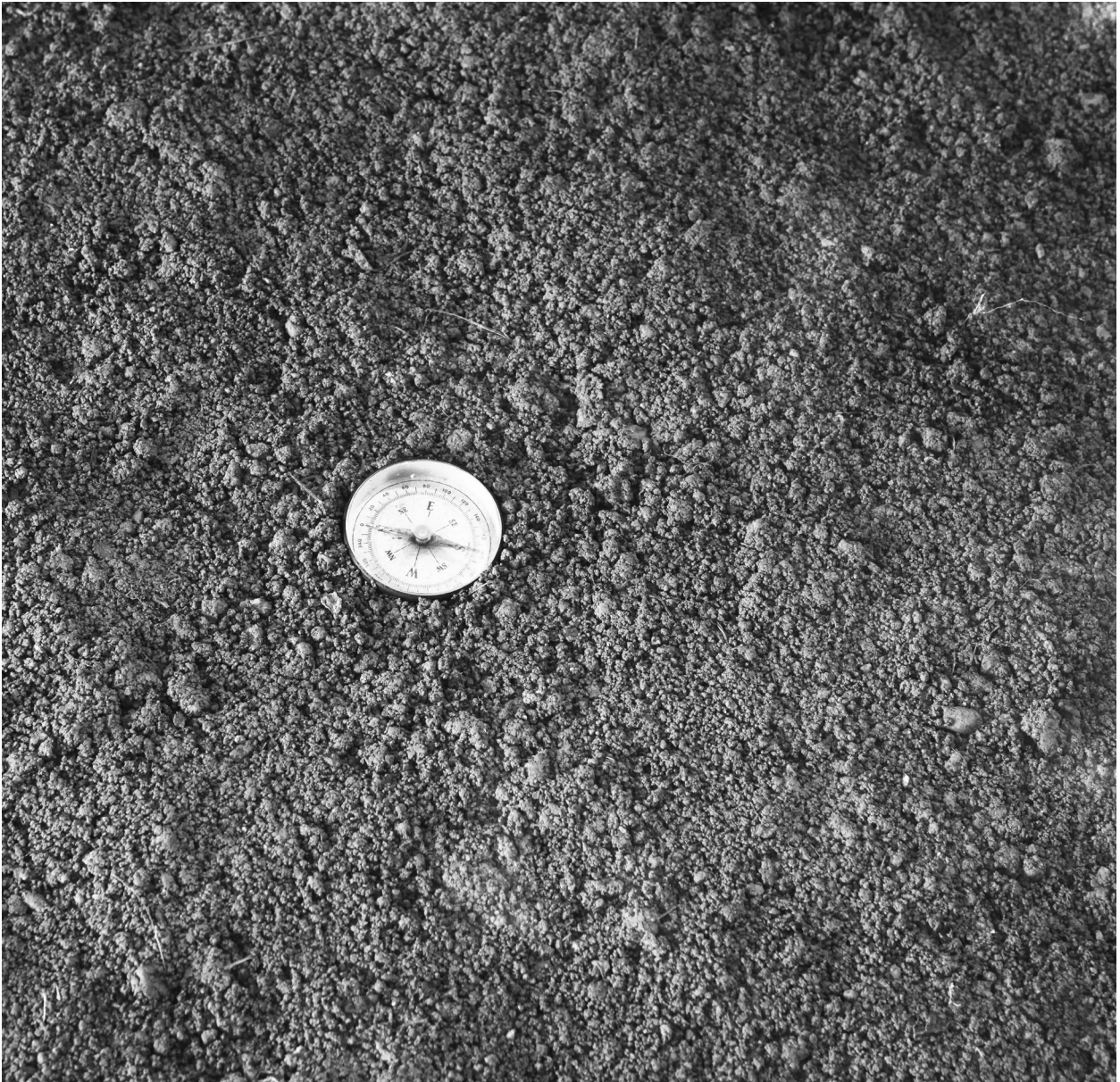


### 〈기억의 방〉, 1999

어머니의 아픔은 외부의 관계보다는 가족과의 관계에게서 왔다. 온갖 걱정이 팔자인양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한편으로 화가 치밀었다. 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속 끓이지 않고 편안하게 계시는 게 안 되는 걸까?

지우기 시작했다. 캔버스에 그려진 내 주위사람들을 지우면서 약간의 흥가분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점차 쌓여져가는 캔버스 옆면에 지울 때 생겼던 물감 자국들이 눈에 띄었다. 아, 결국 지울 수 없었구나! 나는 지우는 게 아니라 덮어나가고 있었다. 잠시나마 기억이 흐릿해 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에 고마움과 함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절망했다. 다시 좋든 싫든 간에 수없이 많은 인연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혼자라는 사실에 불안감을 가질 것이고 그 불안함에서 작업이 나오게 될 것이다.





## 〈나침반〉, 2014

따뜻한 온기가 아직 느껴지는 어머니의 뽕가루 위에 흙이 가득하게 채워졌다.

아! 세상이 보였다.

그 작은 나무함에 세상이 채워졌다.

이제는 이별.

어머니는 삶을 바라보게 해 준 나침반이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길 바랍니다.

편안히 숨 쉬면서 다니고 싶은 어느 곳이든 다니시면서 행복하세요.





어머니를 주제로 2024년에 사비나미술관에서 개인전 일정을 잡았다. 병원에 입원하고 4일째 되던 날 밤, 어머니가 서둘러 떠나신 것이 웬지 나 때문인가 하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느꼈던 여러 생각과 감각들이 무디어지기 전에 작업하고 싶기도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점점 기억이 뚜렷해지는 것 같다) 어머니의 호흡과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리고 삶이 가지는 생명과 죽음…… 해 뜨는 강물 위로 수많은 생각의 부표들이 지나가고, 그것들은 이미지가 되어 보석처럼 빛을 발하며 어우러지고 있다.

이미 다른 문을 열고 들어(나)가신 어머니,  
나 역시 또 다른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나)간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하늘나라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